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연중 제16주일 2018. 7. 22.(나해) 제2115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o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참된 쉼을 찾아서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신부님, 바쁘시죠?” 신자들에게 많이 듣는 인사말 중 하나입니다. 본당신부가 사실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목활동에 보다 더 정진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같은 인사말은 오늘날 서로 간에도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분주함이 미덕으로, 여유로움이 나태와 게으름으로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중순 4박 5일 동안 한티피정의집에서 교구 사제 연중 피정에 다녀왔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자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교구 사제에게 매년 보장된 것은 큰 축복이자, 바쁜 현대인에겐 부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일 년에 한 번, 단 며칠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피정의 시간을 누리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선교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의 피로와 끼니를 못 챙겨먹을 만큼 바쁜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고 하십니다. 끼니를 거르며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서는 같은 연민의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좀 쉬어라.” 끼니를 걸러 가며 일한 결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원치 않은 질병들일 것입니다.

로마 유학 초기, 저는 시험을 앞두고 밤늦게 공부하기 일쑤였습니다. 배움의 내용만큼이나

익숙해지지 않은 남의 나라 말로 치르는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쉬이 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불평하는 저에게 영적 지도신부님께서서는 단순 명료하게 식별해 주셨습니다. 잠 잘 시간과 기도할 시간을 줄여가며 밤을 새워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한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에 그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잘 쉬는 것은 그 후로도 잘 지켜지는 않았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고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으로 가득한 이들입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린다 보면 결국 자신도 잃어버리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쉼 없이 부추기는 욕망은 제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주어지는 휴식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 리모컨만 잡기보다 내적 활력을 채우는 참된 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 중심의 삶’을 다짐하는 참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필로**



오세민 암브로시오 신부 | 초전본당 주임

받아들이는 마음

이수환 바오로미끼 신부 | 카자흐스탄 알마티 교구 선교

Слава Иисусу Христу! (찬미예수님!)

카자흐스탄에서 바오로미끼 인사드립니다. 세 번째 만남이네요. 이제는 만남이 익숙해지셨죠? 오늘 제가 나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엉뚱한 배움’입니다. 제가 사제며 선교사니까 교회적인 것(성경, 성사, 전례 등등)에서만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배움’입니다.

한국에는 장마, 태풍으로 인해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우리는 ‘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보통 우리는 비를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기죠? 우산을 챙기지 못한 경우에 비를 만나게 되면 덜 맞기 위해 비를 피할 장소로 뛰어 갑니다. 만약 비가 신발을 적시는 경우라면.... 축축한... 그 느낌 아시죠? 아쉽게도 ‘비’는 한국 사람에게 환영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신기한 장면을 많이 봅니다. 비가 적게 내리든 많이 내리든 사람들이 평소 걸음으로 다닙니다. 그냥 비를 맞고 다닙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옷이 젖거나 신발이 젖어도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곳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지금과 다르게 비 내리는 횟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울창해서 나무 밑으로 다니면 비를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후가 바뀌어서 비가 자주 내리는 오늘날에도 그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그저 비가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롭다고 생각되면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피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맞이하게 되었을 땐 마음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뱉어 냈습니다. 받아들여려는 움직임과는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엉뚱한 배움에서 욕기의 말씀을 새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 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욘 2,10)

혹시 이 글을 읽으실 때 비가 내리면 이번에는 ‘비’를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자구요.

이번 만남을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또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아쉬우시죠? 그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우린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시편 118,23)



대현성당 “오병이어”의 기적

류인성 미카엘 | 대현본당 교육·홍보위원장

“마리아씨 국 간장을 좀 더 넣어야겠다.” “글라라씨 대파는 굵게 썰어야 제 맛이제~” 여기에 더해지는 것은 밀반찬과 밥을 준비하며, 누가 누구에게 묻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주 이야기, 자녀 이야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맛을 더욱 가미시켜 더 없는 양념이 되고, 정성이 되어 교중 미사 후 전 신자가 참여하는 밥상 공동체는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덤으로 오는 것은 주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친교입니다.

대현본당 공동체의 주일은 이른 아침부터 친교를 위한 음식준비의 분주함으로 시작됩니다. 교중미사 후 어르신들은 먼저 마련한 차림상에 앉으시고, 오렌지색 제복과 멋스러운 위생모자를 쓴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전 신자가 밥상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며, 매 주일 이 많고 큰일을 누가 할 것이며, 음식이 부족하면 그 낭패는 누가 책임지며, 특히 몇 주 하다 그만둘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으며, 기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거지는 여자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하던 형제들이 변화를 일으켜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 봉사에 참여하게 되고, 음식은 차고 넘쳐 사회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사랑방(경로당)에 나누었으며, 힘을

젊은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는 선한 일을 마음을 모아 하고자만 한다면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크고 화려한 건물도, 늘어나는 신자 수도 아니며, 불어나는 교무금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심을 우리 공동체는 매 주일 밥상 공동체를 통해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현본당 공동체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의무’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의무를 망각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현본당 공동체에 6년간 매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체 봉사자(간부)로 구성되어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오병이어회와 대현본당 공동체 식구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필문**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통회 痛悔 - 뉘우침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1항)

투쟁 교회 鬪爭教會 <라> ecclesia militans <영> the Church Militant

지상의 교회를 “투쟁 교회”(ecclesia militans) 또는 “순례 교회”(巡禮教會, ecclesia peregrinans)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특전 미사 特典- <라> privilegium sabbatinum <영> sabbatine privilege

과거에는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드리는 미사를 “특전 미사”라고 하였으나, 현 교회법에서는 전날 저녁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미사 참례의 계명을 이행하게 되어 있으므로(교회법 제1248조) 특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특전 미사”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 派遣 <라> dimissio <영> dismissal

예컨대, 미사의 마침 예식에서 부제 또는 사제는 신자들 각자가 돌아가 선행을 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도록 그들을 파견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90항 참조)

파스카 <라> Pascha

“파스카”라는 단어가 ‘지나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기에, 이를 번역하여 “과월절”(過越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파스카는 본디 유목민들의 축제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축제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결부되었습니다.(탈출 12,1-14 참조)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해방과 구원의 전형인 이 파스카는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으므로(1코린 5,7),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는 이를 기념하는 축제를 가리켜 “파스카”라고 말합니다.

파스카 성삼일 <라> Sacrum Triduum Paschale <영> Passover Triduum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에 절정을 이루며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로 끝납니다. 가톨릭 전례력에서 다른 모든 축일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성삼일(聖三日)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흘 동안 가톨릭 교회는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는 인류 구원의 신비를 기념합니다.

팔리움 <라> pallium

교황과 관구장 대주교가 제의 위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를 말합니다. 주교 임무의 충실성과 교황 권위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교황청과 일치성을 보여 주는 외적 표지입니다. **팔리움**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예레 23,1-6	제2독서	에페 2,13-18	복음	마르 6,30-34.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7. 21(토) _ 한티후원회 미사

7. 18(수) _ 잘츠부르크 청년단 환송미사 및 오찬

7. 19(목) _ 탈북 이주민 가정문화체험 환영식

잘못된 신심 기도 및 활동에 대한 주의와 권고

1.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이 그리스도교 신심에 반하는 행위라는 교회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암리에 우리 교구 신자들이 버스를 대절하여 나주를 방문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신심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구 내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묵주기도'를 가톨릭교회가 정해놓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예 : 묵주기도 신비 1단 중 주님의 기도 후, 성모송 50번이나 100번을 바치고 묵주기도를 50단, 100단 했다는 등)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묵주기도의 정신이 '양적으로 많이 바치면 좋다'는 식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묵주기도를 올바로 바치기를 권고**하며, 묵주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 사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23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의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7월 24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3일(월) 11:00 도량성당		7월 24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3일(월) 11:00 계산성당		7월 25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7월 후원회미사	7월 23일(월) 11:00 수성성당		7월 25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한국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김낙윤 신부, (010)8715-2846

예수고난관상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가능
장소: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녀회
문의: (043)295-5940

성모 승천 전례 피정

일시: 8.13(월) 16:30~15(수)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참가비: 19만원 /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9877-4739

교육 | 모집 | 기타

슈발리에 마음의 축제 '멈춤, 듣기'

일시: 8.10(금)~12(일)
장소: 강화도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선착순 40명)
주최: 예수성심전교수도·수녀회
비용: 6만원 / 문의: (010)4846-6956

제1회 청년순교자축제 TYM

일시: 8.31(금) 17:00~9.2(일) 14:00
장소: 나바위~개갑장터(기쁨의 여정)

마감: 7.31(화) / 회비: 5만원
신청: 복자수도회, (010)4677-4702
<http://www.brotherhood.or.kr>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 치유

일시: 9월부터 10주
시간: 화 10:00~12:30
 금 19:00~21:30
대상: 남녀 30~6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서원, 256-4592

바오로딸서원(동성로) 개축 후원 모집

만남·위로·기도의 공간으로
교구민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 504-10-316039-6
문의: 바오로딸, 425-5373

24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국: 9.1(토) 8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특징: 학비일부지원사업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서강대학교 가톨릭경영자과정 21기 모집

새롭게 개편된 경영·영성 교육과정
개강: 9월 초, 1학기 과정 매주 목 수업

대상: 기업 임직원, 전문직, 성직자 등
등록금: 350만원 / 모집인원: 55명
문의: (02)705-8030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구.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방법: 전화 및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대구가톨릭대병원 VIP병동 오픈

보다 편안하게, 보다 쾌적하게.
최상의 입원 환경과 최선의 노력으로
환우분들의 쾌유를 돕겠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전문)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18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모집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의대교수

☎(053)626-8881~5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3.0T MRI, CT / 위, 대장 내시경
공단검진 지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딩, 배삼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Rex Diamond

Legend of Royal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고통족 동아백화점과 시창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311
010-2008-2329

상위 1%의 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공부방법 특강 ·분석독서코칭(비,문학)
·시험코칭 ·다중지능/적성검사

윤 종 선 (가필로)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지주도학습 검색

행사 | 모임

하계 젊은이 성령 세미나

일시: 8.24(금)~26(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만19세~40세 청년
 신청: <http://dcy.co.kr>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기도회
 문의: 김정훈, (010)9584-8595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일시: 8.29(수)~30(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마감: 8.19(일) / 신청비: 6만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위해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7.26(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교육 | 모집

신·구약 총정리 집중 강좌

일시: 8.25(토)~26(일) 10:00~16: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선착순 130명)
 강사: 황하철 신부 / 5만원(중식제공)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장소: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463-5191 / (010)3787-7070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주말

362차 ME주말: 8.3(금) 19:00~5(일)
 363차 ME주말: 8.17(금) 19:00~1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2018년 2학기 신학·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마리아론, 철학, 교회론, 신·구약성경,
 성경입문, 가톨릭생태영성, 동양고
 전, 교부학, 생활속피정, 남자와여자,
 천주실의 / 개강: 9.3(월)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성가반주오르간, 난타·교전무용·장구,
 왕초보관광영어,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사범자격과정 꽃꽂이·다례, 원어민영어,
 발생법, 가곡성가, 규방공예, 수지침, 요
 가, 멋진사진촬영 / 신청: 254-6115

대가대평생교육원 발성과 합창교실

일시: (월, 목) 19:00 수시접수
 장소: 대구캠퍼스(용산역 4번 출구)
 문의: 660-5555 / (010)3512-0099

황금배경 이론화(템페라) 기초과정 모집

일시: 9.5~12.5 매주 수 10: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 14주
 문의: 대가대평생교육원, (010)9550-253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7월_황인수(이나시오) 신부
 8월_손옥경(데레사) 수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채용 | 안내

3대리구청 사무장 채용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방문 혹은 우편 접수
 마감: 7.28(토) 12:00
 면접: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연락
 문의: 641-5678

(사)빠스카교화복지회 생활지도사 채용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조건: 숙식 가능자(주중)
 서류: 공개채용지원서 및 자소서
 마감: 7.30(월) / 문의: (054)972-2664
 채용공고: 홈페이지(pascha.or.kr)

SOS아동보호센터 직원 채용

분야: 생활지도원 1명, 위생원 1명
 자격: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상, 교대근무 가능한 자)
 문의: 756-7348

**대구SOS어린이마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마을어머니 지원자 채용**

자격: 미혼 여성
 문의: (053)983-3154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옥수(아네스) 010-5048-7739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북지배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시스템 냉·난방기
 김원(토마스) 010-5623-9001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이태윤(미카엘) · 김진선
 호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T. 555-5520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창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